

광주 음식점 1만5600개…43% 한식집 17% 호프집

작년 창업 음식점 5년전에 비해 10% 이상 줄어

5년 이상 생존율 중식당 65% 카페는 18% 그쳐
동구 카페·분식집 많고 통닭집은 광산구에 최다

한식집은 광산구에 가장 많고, 호프집(소주방)은 서구에 물려 있으며 동구는 다른 구에 비해 분식집이 늘었다. 통닭집(치킨집)은 광산구에 유동 많았다.

12일 광주일보가 지난 10일부터 안전행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공개한 일반음식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안 광주에서 창업한 음식점 수는 5년 전인 2009년 한해에 비해 10% 정도 줄었다.

전체 음식점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한식집은 2009년 795건에서 작년 한

광주 구별 음식점 영업 현황					
구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한식집	854	1701	874	1284	1981
호프집	334	749	322	580	607
분식집	208	127	60	143	188
통닭집	46	140	97	121	241
중식집	71	72	56	88	96
카페	132	60	62	6	34
계	6694	6592	2726	645	383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분석>

식은 1년 내 폐업률이 3%대로 가장 낮았다.

음식점 유형별 지역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는 작년 말 기준으로 동구가 132개로 가장 많았다. 남구(62)와 서구(60)가 뒤를 이었다. 통닭집은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광산구가 241 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140개)와 북구(121개)는 중간, 동구는 46개에 불과했다.

한편 현재 광주 지역에 영업 중인 음식점은 1만5596개로 시민 93명당 하나꼴이었다. 음식점 유형별로는 한식집이 전체의 42.9%인 669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프집은 16.6%인 2592개, 분식점은 4.7%인 726개, 통닭집은 4.1%인 645개로 각각 집계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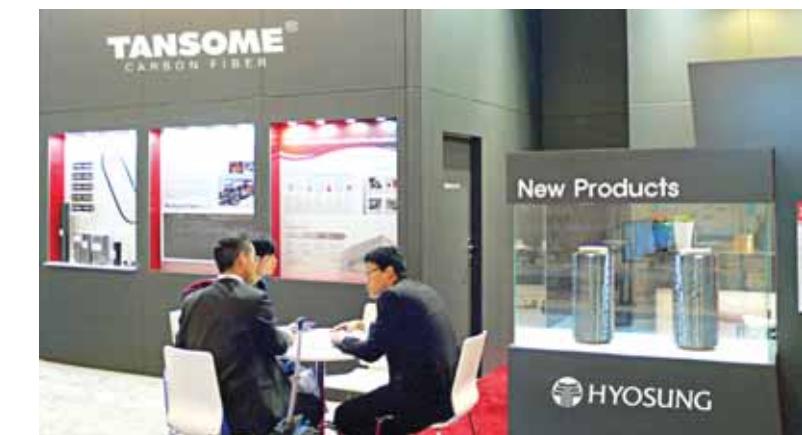
생존율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드러 냈다.

5년 이상 생존율은 한식과 중식, 일식이 카페나 통닭집 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월 이후 음식점의 5년 이상 영업지속 비율을 조사한 결과 중식점은 65%에 달한 반면, 카페는 18%에 그쳤다. 한식집과 식육취급점은 각각 5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식집은 1년 내 폐업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사업 정착이 어렵지만 그 뒤로는 비교적 '롱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지난해 창업한 음식점 가운데 폐업신고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식점은 10%로 가장 높았으며 분식과 중식이 뒤를 이었다. 카페도 1년 내 폐업률이 5%로 높게 나왔다. 반면 일



11일부터 13일(현지시각)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최대 복합재료 전시회 'JEC Europe 2014'에서 효성이 독자개발한 고성능 탄소섬유 '탠섬' 전시부스를 찾은 바이어들이 협성 직원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 탄소섬유 '탠섬' 글로벌 마케팅

파리 복합재료전시회 'JEC Europe 2014' 참여

첨단 신소재기업 효성이 13일(현지시각)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복합재료전시회 'JEC Europe 2014'에서 독자개발한 고성능 탄소섬유 '탠섬'(TAN-SOME)'의 글로벌 마케팅에 나섰다.

'JEC Europe'은 매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 탄소섬유 복합재료업체에서 가장 주목받는 행사다. 2년 연속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효성은 지난해부터 상업화한 탄소섬유 사업의 성과와 제품의 우수성, 탠섬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조현상 산업자재PG장 겸 전략본부 부사장은 "효성이 자체 기술로 전 세계에서 최단 기간 내에 고강도·고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인 'SWEET 2014(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14)'에서 김운태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땅속 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심부지열 시추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SWEET 전시회' 625억 투자협약

의료기·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업종 11개사와 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공급하는 아파트에 '천년나무'(사진)라는 서브브랜드를 도입, 함께 사용

천년나무

LH 서브 브랜드 선정

'천년나무'

을 공급 아파트에 사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공급하는 아파트에 '천년나무'(사진)라는 서브브랜드를 도입, 함께 사용

12일 LH에 따르면 최근 'LH' 이외의 별도 브랜드 도입에 대한 고객의 요구 등을 반영해 서브 브랜드 도입을 추진했으며 직원 내부 공모를 통해 '천년나무'를 대표 서브 브랜드로 선정했다.

'천년나무'는 오래도록 변함없는 집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며 영속성과 편안함, 지속적인 성장, 튼튼함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LH가 입주민의 기정에 신뢰와 행복, 희망을 심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로 오랫동안 함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LH는 앞으로 지역별·아파트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지역본부에서 지역별·단지별 차별화 가능하도록 이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32.54 (-31.33)	코스닥지수	539.30 (-8.38)	금리 (국고채 3년)	2.87% (-0.02)	원·달러 환율	1070.40원 (+5.30)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의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결혼 정보

성사를 호남1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 혼

추천 회원

재 혼

현장 학습과 함께하는 「실용도종약초」 수강생 모집

■ 교육일시: 2014년 3월 4일(화) ~ (15주) / 매주 화요일 저녁 7:00 ~ 계속 모집중

■ 강 사: 김 성희 010-9604-5377

■ 교육내용

- 주변에 자생하는 약초에 대한 생태 및 분류의 이해
- 약초의 성질과 유효성분, 지표성분과의 상관 관계
- 약초 발효액, 발효차, 식초만들기
- 약초의 재배, 채취와 가공 방법
- 현대인의 건강과 healing 도움이 되는 약초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2013년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지난해 농지규모화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에서 시행되는 7개 전 사업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100억원 가량 초과 집행해 전남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농지규모화사업 및 과수원 규모화사업으로 555억원을 들여 875㏊를 매입 및 임대해 쌀전업 농과 과수전업농 1000여명에게 지원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90억원 가량을 추가 집행한 것이다. 공사 전체

목표달성을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역농업 경쟁구조모색과 농가소득향상 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아 최우수본부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경영혁신지원매입사업을 통해 고을의 부채에 시달리는 190농가의 농지 305㏊를 매입하고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해 부채농가가 농어촌에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농지연금사업에서도 지난 한해 동안 379가구에 17억원을 지원하는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밖에 젊은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569명의 젊은 농업인에게 387㏊의 농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2013년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지난해 농지규모화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에서 시행되는 7개 전 사업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100억원 가량 초과 집행해 전남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농지규모화사업 및 과수원 규모화사업으로 555억원을 들여 875㏊를 매입 및 임대해 쌀전업 농과 과수전업농 1000여명에게 지원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90억원 가량을 추가 집행한 것이다. 공사 전체

목표달성을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역농업 경쟁구조모색과 농가소득향상 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아 최우수본부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경영혁신지원매입사업을 통해 고을의 부채에 시달리는 190농가의 농지 305㏊를 매입하고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해 부채농가가 농어촌에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농지연금사업에서도 지난 한해 동안 379가구에 17억원을 지원하는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밖에 젊은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569명의 젊은 농업인에게 387㏊의 농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2013년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지난해 농지규모화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에서 시행되는 7개 전 사업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100억원 가량 초과 집행해 전남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농지규모화사업 및 과수원 규모화사업으로 555억원을 들여 875㏊를 매입 및 임대해 쌀전업 농과 과수전업농 1000여명에게 지원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90억원 가량을 추가 집행한 것이다. 공사 전체

목표달성을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역농업 경쟁구조모색과 농가소득향상 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아 최우수본부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2013년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지난해 농지규모화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에서 시행되는 7개 전 사업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100억원 가량 초과 집행해 전남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농지규모화사업 및 과수원 규모화사업으로 555억원을 들여 875㏊를 매입 및 임대해 쌀전업 농과 과수전업농 1000여명에게 지원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90억원 가량을 추가 집행한 것이다. 공사 전체

목표달성을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역농업 경쟁구조모색과 농가소득향상 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아 최우수본부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